[나와 《길림신문》]

◎ 리광인

《길림신문》 초창기 기자로 뛰던 그 시절

"오호~《길림신문》이 어느덧 40돐 생일을 맞이했구나!"

4월 1일 《길림신문》이 창간 40돐 생일을 맞이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보니 감개가 무량하다. 그때 나는 연변일보사의 기자로 있었는데 《연변일보》 총편집 겸 《길림신문》의 총편집을 맡은 오태호의 파견을 받고 《길림신문》 초창기 기자로 뛰여보았으니 더욱 감개가 무량하다. 나의 뇌리에는 《길림신문》의 40년전 초창기 시절이 생생히 떠오른다.

1985년 봄의 어느 날, 《연변일보》 정치생활부 박창윤 주임이 사무실에 들어서더니 오총편집이 부른다며 가보라고 하였다. 오태호 총편집의 사무실을 노크하고 들어서니 그가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맞아준다.

"새 과업을 주고 싶어서 불렀소. 쑈리(小李)를 《길림신문》 조선족 산재지역 취재단에 파견하기로 하였소."

"예, 제가요?"

"그렇소."

"제가 될가요?"

"안될 게 뭐요? 한번 나서보시오."

이렇게 나는 한때 《길림신문》 초창기 바깥 취재단의 기자로 나서보았다. 그때까지만도 나는 연변일보사에 입사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햇병아리였지만 오총편집은 나를 믿고 등을 밀어주었다.

그때는 《길림신문》이 정식으로 창간(4월 1일)된 지 얼마 안되는 시기였다. 《길림신문》의 직접적인 발기자와 창간자는 당시 《연변일보》 사장 겸 총편집이였던 오태호로서 당시 그는 《연변일보》 총편집이면서 《길림신문》의 총편집이기도 하였다. 세상에 갓 태여난 《길림신문》은 길림시, 통화시와 장춘시 등지에 비록 기자소를 세웠다지만 지역 통신원들이 별반 없어 연변 밖 여러 지구들을 고루 아우르는 보도들이 따르지 못하였다. 연변일보사에서 한패의 기자단을 파견하기로 한 것은 이런 연유에서였다.

조선족 산재지역 취재단은 둘씩 몇개 팀으로 나뉘여졌다. 연변일보사 농촌부의 주상룡기자와 내가 한팀으로 길림지역 반석현 취재길에 나섰다. 주상룡기자는 나보다 몇살 손우이고 연변일보사의 중견기자로 뛰고 있어 믿는 구석이 있게 되였다.

우리의 주요 취재 대상은 반석현의 시골마을들이였다. 농촌 보도에 아무런 경험이 없는 나로서는 주상룡기자를 따르기만 하였다. 주상룡기자는 어딜 가나 시골 사람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려 우리의 취재는 순풍에 돛단 격이였다. 기사 쓰기는 현지에서 그날그날을 넘기지 않았다.

우리가 아직 귀환하지 않았는데 반석현조선족소학교에서 도서실을 잘 꾸린다는 우리의 첫 기사가 벌써 그달 4월 23일자 《길림신문》 3면에 실렸다. 반석현 길창진 쏘구조선족촌 농민들이 벼농사 울타리를 벗어나 상품화, 전문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두번째 기사는 보편적인 지도적 의의가 있다면서

▲ 20세기 80년대 중반 연변일보사 시절의 저자

▲ 20세기 80년대 중반 연변일보사 정치생활부 시절 기념사진(뒤줄 왼쪽 첫번째가 저자임)

《길림신문》 4월 27일자 1면 톱에 실렸다.

그후 두달도 안되는 사이에 주상룡기자와 합작해서 쓴 10편의 기사가 륙속 《길림신문》에 실리였다. 내가 연변일보사 조선문 교육보도를 맡은 데서 우리의 기사는 농촌의 농사 현실과 교육 현실을 고루 아우르면서 길림지구 19개 조선족 소학교 300여명 교원들 중 절반에 달하는 교원들이 민영교원이나 대과교원들이라는 현실에 〈산재지구에도 조선족 사범학교가 필요하다〉는 기사를 작성하였는데 기자래신으로 처리되여 반향이 좋았다.

그 시절 나는 이미 사진을 찍고 현상할 줄 알았기에 우리의 인물기사에는 관련 인물사진이 함께 올라 보도 효과가 좋았다. 사진보도도 곁들이였다. 반백에 나는 반석현 대왕향 도목촌의 공산당원 박갑준이 자기와 짝을 맺은 〈련계호를 도와 같이 부유해진다〉는 기사에는 인물사진까지 박히면서 6월 18일자 《길림신문》 1면 첫자리를 차지하였다. 《길림신문》 산재지역 취재길에서 돌아오자 오태호 총편집은 나를 부르더니 "쑈리, 잘하는구만!" 하면서 나의 두 손을 꽉 잡아주었다.

사실 칭찬을 받아야 할 기자는 주상룡기자였다. 그동안의 여러 기사들은 모두 우리 두 사람의 이름으로 실리였지만 반수 이상이 주상룡기자가 쓴 글들이였다. 비록 갓 꾸리는 《길림신문》의 특성상 모든 기사들이 짤막하게 기사화되였지만 그런 기사들은 《연변일보》에서 파견한 기자들이 《길림신문》 꾸리기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현지 취재의 산물이였다.

이는 지금 생각해도 잊을 수 없는, 《연변일보》와 《길림신문》 한집안 살림 시절에 《길림신문》의 초창기 기자로 열심히 산재지역에서 뛰여본 나의 한단락 보람있는 기자생활 추억이다.

그때로부터 어언 40년 세월이 흘러갔다. 그후 1987년 3월에 《길림신문》이 연변일보사에서 분가하고 나는 조선족 력사 연구에 깊이 빠지면서 《연변일보》 기자생활을 점차 접어야 하였다. 그러나 《길림신문》과의 그때 그 인연으로 하여 나는 우리 겨레 력사와 씨름하면서도 시기시기 우리 혁명사 글들을 《길림신문》에 많이 련재하면서 깊은 인연을 이어왔다.

— 2025년 4월 2일 상해에서

연길시 5중 연변주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초중부) 우승을

▲ 대회 우승을 차지한 연길시 5중축구팀

2025년 연변주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초중부)가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룡정해란강축구문화타운에서 열린 가운데 연길시 5중이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는 연길시 3중, 연길시 5중, 연길시 8중, 연길시 10중, 연길시 13중, 연길시실험중학, 룡정시룡정중학, 룡정시 4중, 훈춘시 6중 등 9개 중학교 축구팀이 참가하였다. 4일간의 치렬한 각축전을 펼친 결과 연길시 5중이 우승을 차지하고 연길시 10중과 연길시 4중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연변주체육국과 연변주교육국에서 주최하고 연변축구협회와 연변교정축구협회에서 주관, 룡정해란강축구문화타운에서 협찬한 이번 대회는 연변의 청소년 축구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전국 축구 발전 중점도시 건설과 서부지역 체육-교육 융합 청소년 축구훈련 시스템 시범 건설에 진력하며 청소년 축구 육성 시스템과 예비 인재 유소년팀 시스템을 완비하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 김파기자

2025 제4회 중국청소년축구리그(연변경기구) 경기 개막

▲ 연길시중앙소학교팀 대 돈화시제6소학교팀 개막전의 한 장면

4월 17일, 2025 제4회 중국청소년축구리그(연변경기구) 경기 및 연변주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소학갑조)가 룡정해란강축구문화타운에서 개최되였다.

연변주체육국과 연변주교육국에서 주최하고 연변축구협회, 연변교정축구협회에서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주내 7개 팀에 230여명의 청소년 축구선수들이 참가, 4월 20일까지 리그전을 통해 우승을 내오게 된다.

한편, 개막전에서는 연길시중앙소학교팀과 연길시연신소학교팀이 각각 상대팀을 누르고 첫 승을 가져왔다. 중앙소학교팀의 김주형선수는 축구를 통해 단합과 투혼의 의미를 알게 됐다며 이번에 꼭 우수한 성적을 쟁취하겠다고 말했다.

2025 '달려라 소년' 길림성 첫 현(구)청소년축구리그 제3역(연변주) 경기도 당일 오후 룡정해란강축구문화타운에서 개최되였다. 길림성내에서 온 9개 팀이 소조전과 교차전을 통해 4월 20일에 우승을 내오게 된다.

/ 중국조선족소년보

전망대

연변팀 첫 홈장전, 맞춤한 상대에 첫 승을 노려라!

4월 22일 오후 3시, 전 4라운드 경기에서 1무 3패로 1점을 기록하며 꼴찌에 머물러있는 연변룡정커시안팀(이하 '연변팀')이 연길시전민건강중심체육장에서 현재 1승 2무 1패로 5점을 기록하고 순위 10위를 달리고 있는 대련곤성팀(이하 '대련팀')과 2025 화윤음료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5라운드 경기를 치르게 된다.

지난해 후반기부터 홈장승에 목마른 이기형 감독과 선수들에겐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는 첫 홈장전이지만 반드시 전력을 다하여 승점을 챙겨야 할 경기여서 많은 축구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시즌 대련팀은 운남옥곤에서 짐바브웨 용병 무셰퀴를, 대련영박에서 코트닉을, 료녕철인에서 사빌을 각각 영입하였는데 이 선수들은 모두 갑급리그 경험이 풍부한 선수들이다. 무셰퀴의 경우 지난 시즌 운남옥곤의 슈퍼리그 진출 최대 공신이라 할 수 있는데 리그 최다득점인 25꼴을 성사시킨 주인공으로 대련팀 공격선의 핵심인물이다. 공격형 미드필더 코트닉과 중원의 조직자 사빌은 공격 다양성으로 상대의 수비선을 힘들게 하는 선수들이다. 여기에 비하면 갑급리그 경험이 전혀 없는 연변팀의 용병들은 평가하기가 좀 무엇하다. 따라서 무셰퀴를 비롯한 용병들에 대한 대인방어가 중요하며 그들의 발밑에서 공을 차단하는 것이 이번 경기의 승패를 결정짓게 될 것이다.

이미 진행된 경기들을 살펴보면 쌍방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다. 두 팀은 모두 광주표범과 청도홍사와 맞붙었는데 대련팀은 홈장에서 광주표범에 0:2로 패하고 원정에서 청도홍사와 0:0으로 손잡았다. 연변팀은 원정에서 광주표범에 0:4로 패하고 역시 원정에서 청도홍사와 1:1로 비겼다. 두 팀 모두 광주표범에 지고 청도홍사와 비겼다는 점에서 팀의 실력이 막상막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변화라면 대련팀이 4라운드가 끝난 후 경기 성적 부진을 빌미로 에스빠냐 감독 오스카를 경질하고 지난해 팀을 이끌고 갑급리그 진출에 성공한 조발경(61세)을 집행감독으로 다시 임명했다는 점이다.

현재 연변팀의 급선무는 팀에 알맞는 전술체계를 구성하고 단조로운 공격 루트를 다양화하는 것이다. 도밍구스가 중원에서 고전하고 음바와 포부스가 공격선을 오르내리며 무척 열심히 뛰지만 만족할 만한 경기를 펼칠 수 없는 것은 진공을 전개하는 매개 고리에서 선수들 사이의 배합이 미숙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동료 선수가 공을 잡으면 내가 가야 할 자리를 자기절로 판단하고 뛰거나 내가 공을 잡으면 동료 선수가 바라는 곳에 공을 찔러주는 그런 매끈한 배합이 항상 0.1박자 차이로 모두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다. 모두가 공격에 가담하여 앞으로 향해 달리다가 그 0.1박자 때문에 상대에 끊겨 상대의 쾌속 반격으로 이어진다면 팀 전체는 식은땀을 빼야 한다. 이런 경우 십중팔구는 꼴로 련결된다.

▲ 연변팀과 석가장공부팀 경기 한 장면 / 연변룡정축구구락부

대련팀과의 홈장전은 연변팀으로 말하면 매우 중요한 경기이다. 한번도 이겨보지 못한 음영에서 벗어나고 꼴찌라는 순위가 가져오는 압력을 이겨내며 응집력과 자신심을 회복하는 관건적인 경기이기 때문이다. 있는 힘을 다해 승리를 쟁취하는 것만이 이번 경기의 유일한 선택이다.

연변팀 전체가 홈장의 우세를 충분히 리용하여 강세로 상대를 압박하는 동시에 유효한 공격으로 선제꼴을 뽑는다면 연변팀을 관심하는 모든 축구팬들에게 첫 승의 희열을 안겨주지 않을가 생각한다.

/ 김태국기자

연변대학 첫 바리스타 양성과정 성공적으로 수료

4월 13일, 연변대학과 연길시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 펑베이(朋焙)직업양성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한 바리스타 초급과정 1기 수료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교육은 졸업 예정 대학생들의 취업 지원 및 인재유치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초부터 펑베이직업양성학교는 연변대학 졸업 예정자 46명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기술 양성을 진행했다. 커피 기초리론부터 클래식·창의적 아트 커피 제작기술까지 다채로운 강의를 통해 커피 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열정을 끌어올렸으며 졸업생들에게 새로운 취업 방향을 제시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맞춤형 지도 방안을 제공했다.

수료식에서는 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에서 발급하는 '바리스타 초급 자격증'을 수여했다. 이 자격증은 전문기술 능력을 립증하는 증명서일 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카페·프랜차이즈 매장부터 커피 무역 분야까지 다양한 직업 기회를 열어주는 열쇠로 평가받고 있다.

연길시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내 종사자들의 기술 력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기술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대학생들에게 학습 기회와 취업 플래트홈을 제공함과 동시에 우수 인재들이 연길에 머물며 창업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김파기자

主管 / 主办：吉林日报报业集团　出版单位：吉林朝鲜文报社　印刷：吉林日报社印刷厂　地址：长春市绿园区普阳街 2366 号　邮编：130011　传真 :87627100　广告许可证 :2200004000046　定价：180 元 / 年
编务办：87619812　全媒体中心：87616700　发行广告管理部：87627091　延边记者站：（0433）2518860　吉林记者站 :13069156625　梅河口记者站 :13604447151　白山记者站 :15143355283　首尔分社 :+82（02）7868089